

# 흑해 곡물 수입 의존 높은 한국... 대체 수입국 확보 나서야

### 농경연, 러시아 곡물협정 파기 관련 곡물 수급 상황 모니터링 강화 제시 우크라 우회 수출로 리스크 완화...비용 최대 3.3배 소요시간 1.8배 ↑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파기로 곡물 수급 문제가 국제사회 이슈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 "곡물 수급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체 수입국을 확보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non-GMO 식용 옥수수의 수입 비중 높아 공급 차질 가능성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 발표된 "흑해곡물협정 중단이 곡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담겼다.

31일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 7월 17일 흑해곡물협정 연장 가부를 발표하면서 곡물의 주요 수출항로인 흑해가 봉쇄됐다.

러-우 전쟁으로 인한 곡물 공급 차질과 미국 등 주산지 가뭄 이슈가 더해져 국제 곡물 가격이 전쟁 직후 급등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7월 흑해곡물협정 체결로 공급 차질 우려가 완화되며 국제 곡물 가격이 점진적으로 하락해 가격 안정화에 기여한 바 있다.

그러나 러시아가 최근 4차 협상을 파기하면서 국

제 곡물 가격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다만 연구진은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연장 거부 발표 직후 밀 선물가격은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으나, 당일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국제 곡물 시장이 미치지 못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동유럽 내 루마니아 등의 곡물 수출 여력이 충분하고, 3차 협정 이후 우크라이나가 협정 미연장에 대비해 흑해를 대체하는 우회 수출경로를 활용하여 수출량을 확대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출경로를 다변화하는 방법으로 공급 차질은 최소화됐으나 이에 따른 물류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연구진은 다뉴브강을 이용한 우회 수출이나 철로나 육로 등 주변국을 통한 수출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겠지만 수출 비용 상승은 최대 3.3배, 소요시간은 1.8배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들었다.

게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고 쌀 최대 수출국인 인도의 기습적인 쌀 수출금지 발표로 대체 곡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제 곡물 시장은 가격 상승 압력이 더해지는 등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있다.

다행인 점은 우크라이나의 2023-24년 곡물 생산량이 전년 대비 30% 내외 감소하지만, 세계 옥수수와 콩 생산량은 전년 대비 각각 6.8%, 10.9% 등 증가가 예상된다. 또 러시아의 곡물 수출량이 내년까지 600만 t에 육박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등도 곡물 수

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구진은 이 같은 국제 정세 속에서 식용 곡물 수입의 흑해 지역 의존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가 대체 수입국 확보에 힘을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당장 우리나라의 말·옥수수 수입비중은 흑해 지역 국가가 18%, 이 가운데 식용 옥수수는 50%에 다하는데 국제 곡물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져,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며 "국제 곡물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과 긍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히 수입선 대체가 어려운 식용 옥수수의 경우 공급 차질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장기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수해 농업인에 도움 되길"... 농협광주본부, 호우 피해 지원 성금 전달



지난 31일 호우피해 지원 성금 전달식에 참여한 고성신(왼쪽 여섯번째) 농협 광주본부장과 문병우(왼쪽 일곱번째) 의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 모금액 1320만원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고성신)는 지난 31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농업인과 주민들의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함께하는 100농협' 실천을 위한 성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협 광주본부와 광주시내 14개 지역농협으로 구성된 광주조합운영협의회(의장 문병우)는 지난날

24일부터 호우피해 지원 성금 모금을 시작했다.

전달식에는 고성신 본부장, 문병우 의장, 구상봉 사무총장, 한제규 노조위원장과 광주본부 임직원 등 20명이 참여했으며 광주조합운영협의회를 통해 모금한 성금 1320만원을 전달했다.

이밖에도 농협 광주본부는 중앙회 계열법인, 지역농협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성금 모금을 펼치고 있으며,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인

력지원 활동을 전개하는 등 수해피해 극복을 위한 지원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문병우 의장은 "이번 집중 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지원하고자 성금을 모금하게 되었다"며 "수해를 입은 농업인들이 하루 빨리 영농에 복귀하는데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해양에너지, 장기성장계획 워크숍 진행

### 새로운 시장 발굴 지속성장 방향 지자체와 협력 상생 방안 모색

(주)해양에너지(대표이사 정희)는 최근 남해혁신지원센터에서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장기성장계획 워크숍'을 시행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본부별 장기성장계획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도시가스 사업 외 새로운 시장 및 성장 잠재력 발굴을 통한 지속 성장 방향과 전략을 논의했다.

또 최근 집중호우로 도시가스 배관 파손 등 안전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지자체와 협력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정희 (주)해양에너지 대표이사는 "탄소중립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며 지속 성장을 위한 새로운 가치 창출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장기성장계획' 수립에 집중하며, 끊임없는 도전 정신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모든 역량을 이끌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해양에너지는 광주광역시와 전남 8개 시군에 안전한 도시가스 보급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지역 내 그린뉴딜 및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32.58 (+24.26)
↑ 코스닥	935.97 (+22.23)
↑ 금리(국고채 3년)	3.681 (+0.046)
↓ 환율(USD)	1274.60 (-2.40)

## 환율우대에 경품까지...광주은행 'SUMMER 환전 페스티벌'

### 달러·엔화 등 최대 80% 환율 우대 팡 없는 모바일 행운 복권 증정도

광주은행은 오는 25일까지 '2023 SUMMER 환전 페스티벌'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4가지 통화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달러와 엔화, 유로화를 최대 80%까지, 중국 위안

화를 최대 40%까지 환율 우대한다.

한도는 달러 1000불, 엔화 10만엔, 유로화 1000유로, 위안화 1만위안까지 신청 가능하다.

광주은행은 환전 이벤트에 참여한 환전 고객이 상품 서비스 안내에 동의하면 '팡 없는 모바일 행운의 복권'이 자동으로 발송되는 이벤트도 제공할 예정이다.

'팡 없는 모바일 행운의 복권'은 당점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 1000만원(1명), 50만원(1명), 광주

은행 기프트카드 5만원(10명), 스타벅스 기프트콘 5000원(200명), 외화예금 가입 시 사용 가능한 환율우대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영문 광주은행 외환사업부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기다려온 고객을 위해 환율 우대는 물론 다양한 경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외환 수요와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